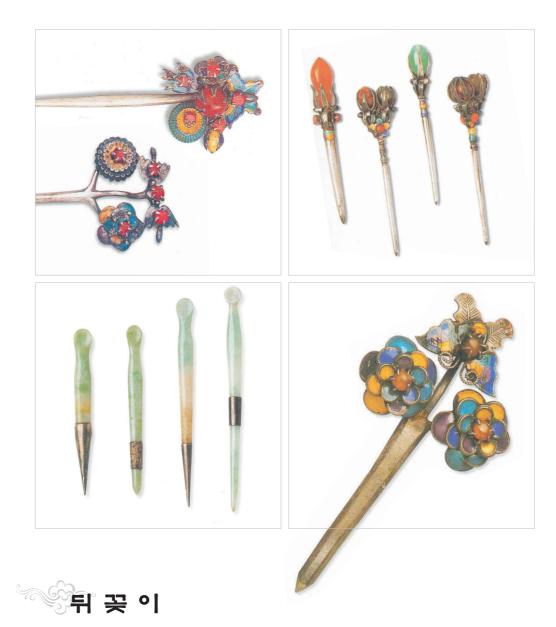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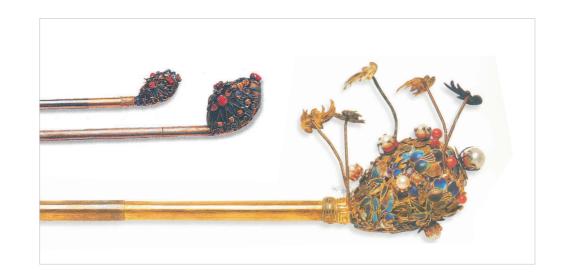
## サイツをイナ

## - 참고자료 -

이경자, 홍나영, 〈우리옷과 장신구〉, 열화당, 2003. 장숙환, 〈전통 장신구〉, 대원사, 2002.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되꽂이란 여성들이 쪽찐 머리를 한 후 이를 장식하기 위해 쪽에 꽂은 각종 장식을 말한다. 뒤꽂이는 조선 후기 가체 금지령으로 반가 부인의 얹은머리가 금지되고 쪽머리가 일반화하면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복식의 특징 중 하나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강조한 것인데, 뒤꽂이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머리빗의 때를 제거하거나 가르마를 타기위해 사용하는 빗치개 모양의 뒤꽂이나 귀이개 모양의 뒤꽂이는 실용적인 도구에 장식성을 가미한 대표적인 것이다.





## भी मि

부녀자의 쪽진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꽂거나, 의례용 관이나 가발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수식 용구의 하나이다. 잠, 계, 채 혹은 차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기혼자는 머리를 올려 얹었기에 비녀를 사용해 왔다. 이러한 비녀는 고가의 장신구였으며, 예복용 비녀는 가보로 여겨 대를 물려 사용하기도 했다. 비녀는 그 모양과 재료에 따라 '비취비녀','용비녀'하는 식으로 부르거나, 재료와 장식기법, 형태를 모두 아울러 '은파란매죽비녀', '백옥투각죽절비녀'하는 식으로 불렀다.



노리개는 조선시대 여자의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달던 장신구로서, 궁중을 비롯한 상류층에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패용되었다. 노리개는 띠돈, 주된 장식물인 주체, 주체를 걸고 있는 매듭과 장식 술,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노리개의 모습은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에서 느낄 수 있는 비례를 갖추고 있어 한국적 미의 전형을 보인다. 노리개를 하나를 찼을 때는 단작노리개, 세 개를 동시에 찼을 때는 삼작노리개라고 부른다.



주머니

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해 만든 물건으로,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했다. 주머니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널리 찼는데, 역사가 매우 깊다. 형태가 둥근 모양의 두루 주머니와 각이 진 귀주머니가 대표적이다. 주머니에는 부귀,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 문양을 수놓거나 금박으로 찍어 꾸몄고, 주머니 끈에는 다남을 기원하는 연밥이나 괴불 등을 만들어 장식으로 달았다.



댕기는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드리우는 좁고 긴 천으로, 주로 땋아 내린 머리 끝에 묶어 머리카락이 풀리지 않도 록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조선시대에 사용한 댕기에는 혼인 전 남녀 모두가 사용했던 제비부리댕기, 기혼 여성 이 쪽머리를 곱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쪽댕기, 대여섯 살 이하의 여자아이들이 했던 말뚝댕기와 도투락 댕기, 서너 살 이하 여자 아이의 앞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 한 뱃 씨댕기 등이 있다.



## 떨 잠

떨잠은 '떨천판자'라고도 하는 조선시대 여성의 머리 장식으로 왕비를 비롯한 상류층 부녀자가 어여머리나 큰머리를 할 때 머리에 꽂아 장식하였다. 머리 앞부분에 꽂는 것은 선봉잠, 좌우에 꽂는 것을 떨잠이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나비 형태가 많다. 가는 용수철에 물린 나비와 새 등은 자그마한 움직임에도 파르르 떨리는 모습으로, 우리 옛 여인들의 수줍은 아름다움을 대신 전해 주는 최고의 수식품이다.